민주적 행정운영이 발전의 시금석

특별취재 일본입명관대학의 학생 자치조직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대책을 세우는데 선진국의 발전사례를 참고하고자 본사는 우리 학교의 국제교류위원회와 공동으로 7월 28일부터 7박8일간 일본의 입명관대학을 방문했다. 그 중 입명관 대학의 학생자치조직과 대학생생활협동조합에 관한 글을 2차례에 걸쳐서 싣는다.

〈편집자 註〉

"우리는 화염병과 교내시위로는 이제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 60년대 후반의 격렬했던 시기, 그때 우리의 선배들은 지켜나가야한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각목을 들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개개인이 만들어 나가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생들은 다른 방향으로 사회변화의 길을 찾고 있다"

입명관 대학 학우회 산하 학원진흥위원회 회장 고바야시(경제·4)양의 말이다. 일본대학생의 자치조직인 학우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다. 이러한 전제가 필요한 이유는 그들의 자치조직이 우리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첫째로는 대학생생활협동조합(생협)을 들 수 있다.

생협은 일본 대학생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학우회내에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우리학교의 경우 인권복지위원회)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둘째로 입명관대학의 대학생 중 90%이상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다. 수업외의 학교생활은 거의 동아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나 각단대에서 특별히 하는 행사는 거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자치회가 각단대나 과의 학생회 조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에 비해 일본대학의 학우회는 각 동아리를 조직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학우회의 성격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일본의 학생운동의 성장과 소멸과정이다.

주지하다시피 각목과 화염병이 대학생활의 상징이 되었던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일본의 학생운동은 과격한 시위에 맞서는 정부의 강력한 탄압으로 거의 뿌리가 뽑혀져 나갔고 그럼으로써 학우회는 대중을 견뎌내지 못한 통나무점처럼 붕괴되어 갔다.

그후 학우회는 그 건설을 담당할 주체세력의 부재와 더 큰 요인으로는정부나 학교측의 탄압으로 좀처럼 재건되지 못했고 재건되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신지어 대화가 아닌 방법으로(즉 교내시위를 한다든가 학교건물에 구호를 새겨놓는 행동)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우회는 학교를 도와 그 학생들을 교칙에 의해 처벌하도록 한다고 입명관대학 학생과장 이마무라씨는 전하고 있다.

위의 전제사항을 통해서 입명관대학 학우회의 성격을 정성되어 있다. 중앙사무국은 체육부본부와 입명관대학신문사·방송국, 응원단을 산하조직으로 두고 있으면서 학우회의 기본적인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다.

학우회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나누어 학생의 자치적 활동을 지원하는 일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에 건의하는 일로 구분지을 수 있다.

입명관대학 학생들은 매학기마다 5천엔(1백엔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8백원)의 자치회비를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따라서 학우회는 1년 활동비로 약 7천만엔 상당의 돈을 지출하게 되며 이들 돈은 학술이나 학예, 체육동아리의 행사나 공연, 그리고 학우회조직의 축제행사에 쓰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학기초에 걱정 되는 의례행사인 등록금책정에 있어서 입명관대학은 그러나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학교행정전반에 걸쳐 학생은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떠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학교당국 또한 학교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확신이 학생들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일본 대학생들은 정치투쟁보다는 취미활동에 중점을 둔다.

"우리 직원들은 학생들의 요구에 근본적인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은 인간적 성숙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의 자치조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 또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학생과장 이마무라씨는 말한다.

이마무라과장의 말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입명관 대학의 제2캠퍼스 건립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입명관대학은 이공계 학부생을 위한 제2캠퍼스를 비와꼬에 건립하고 있는 중이다.

실지로 취재팀은 내년 5월완공을 위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비와꼬 캠퍼스를 방문했다.

20만평의 대지위에 고층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은 놀라웠다. 완성만 되는 즉시 학생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5개 건축회사가 강의실에서부터 체육관과 기숙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물들을 짓고있는 광경이었으니 말이다.

뿐만 아니라 본캠퍼스에서 비와꼬캠퍼스를 왕복하는 버스노선을 개강 즉시 운행하도록 준비해놓은 그들의 치밀성은 실로 감탄할 만했다.

입명관대학이 발전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고자하는 정부, 학교당국 그리고 학생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 건립되고 있는 입명관대학의 제2캠퍼스의 경우 총건설비 500억엔 중 150억엔에 해당하는 학교 부지를 시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았다고 한다.

또한 입명관 대학에서는 매학기 초마다 대학의 전년도 결산서와 다음학기 결산서를 일반학생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공개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언제든지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민주적인 학교행정운영이 대학주체들을 얼마만큼 발전시키는지에 대해 입명관대학은 큰 모범을 제시하고 있었다.

입명관대학 학생중 한명이 본기자에게 말씀 일본이 한국보다 20년 정도가 앞서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왔다.

그 학생의 질문이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일컫는 말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대학만으로 그 논의를 한정시키다면 한국의 대학과 학생 자치 조직은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게 변모되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들이 필요하고 그 전제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짧지 않은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양질의 대학교육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행정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따라서 사회현실이 다르고 대학의 인식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일본과 우리의 대학을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일이다.

현재 한총련을 비롯한 각 학교 학생회는 대학내의 학생복지와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애전보다 많은 노력을 부자하고 있다.

이는 정치투쟁이 총학생회의 주요사업이었던 과거의 오류들을 시정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의 발로라 생각한다.

일본의 학생조직은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야만 했다. 중지박살이 난 후 다시 학생조직을 건설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음을 일본 대학생들은 뼈저려게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참고로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우리 학생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우회는 자치활동지원과 학교와의 통로역할
일본 학생조직의 시행착오 거듭하지 말아야

해외특별 취재반
정 미 경 記者 · 박 경 화 記者

가장큰 당면문제는 장래 및 진로

◇93학번 신입생의 태도 및 가치관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1. 일반적인 사항

본 조사에서는 '93신입생 정원에 해당되는 총 2천무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모두 1천2백63부가 수거되어 63.15%의 응답율을 보였다.

'93 신입생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74년도 출생이 47.82%로 가장 높았고, 단대별로 살펴보면 법대, 사대의 경우 74년생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남녀별로 비교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74년생의 비율이 높다. '93신입생 출신고의 가장 높은 비율의 지역은 서울로 52.26%를 차지하고 있고, 단대별로 분석해 보면 법대, 약대 경우 지방 학생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음대의 경우는 서울 지역 출신고 학생의 비율이 71.53%로써 지방 학생의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2. 대학생활 태도

먼저 대학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문항에 대해 조사대상자중 39.66%가 보통이라 응답하였고, 학생 자신들의 면학자세에서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신입생들(44.65%)이 적당주의의 팽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법대, 약대, 체대의 경우 다른 단대에 비해서 면학자세에 대해 학문탐구에 수동적인 자세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대학진학의 목적에 대한 응답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응답이 전문지식 습득 및 학문추구로 40.34%를 차지했다. 단대별로 비교해 보면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의 경우 대학진학의 목적을 전문지식 습득 및 학문추구로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대, 음대, 체대는 자신의 소질개발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경험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폭넓은 인간관계로 47.66%나 차지하고 있고, 여학생(56.52%)이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장 경험하고 싶다고 더 많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한의대가 다른 단대에 비해 학문적 탐구라 응답한 비율(50.0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교 학생이 된 것에 대한 긍지는 자랑스러운 편, 대단히 자랑스러운 편이 각각 42.73%, 11.86%를 차지하고 있어서 조사대상자중 질반가량이 본교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남녀별로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지만, 단대별 비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약대, 음대, 체대의 경우 다른 단대에 비해 본교에 대한 긍지가 의외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교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이 교육시설 확충으로써 조사대상자중 35.2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93 신입생들은 본교 발전의 원동력으로써 학생자신의 내부적요인보다는는 학교 당국의 책임적 요소가 24.27%를 차지하고, 어려운 심리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48.99%의 대상자들이 스스로 해결한다고 응답하였다.

3. 가치관 및 심리적 특성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냐는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의 신입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생활(42.87%)이라고 응답하였다. '93 신입생들의 이성교제 여부는 조사대상자 중 29.25%만이 이성교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들(33.69%)이 여학생들(22.38%)보다 이성교제를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장래 및 진로문제로써 2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있는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치관 명료화 프로그램이나 자기성장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복별히 삶의 과도기를 맞게 되는 신입생들에게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형성하게 도와준다.

면학자세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적당주의 팽배나 수동적인 학문탐구 자세는 각 학과별 특성을 살려 study-group을 중심으로 서로를 도와 효율적인 학문탐구 분위기를 스스로 길러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또한 본교에 대한 태도에서는 '92년도 신입생들 보다 대단히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학과에 대한 태도에서는 '92년도 신입생들에 비해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을 많이 가지고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공에 대한 만족도 문항에서 만족도가 낮은 경우 교과내용이 기대와 어긋나기 때문으로 되어 있다.

이 결과는 고교생들에게 대학의 특성이나 전공학과의 소개가 추상적으로 되고 있거나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교의 특징을 잘 알리는 홍보물은 물론 전공학과에 대한 상세한 안내서를 제공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오 윤 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원)

진학의 목적은 전문지식 습득 및 학문추구
대학생활에 대한 자신감 예년에 비해 부족

천고마비의 계절 어학특강은?

◆ 영어회화 특별강좌
1. 기 간: 9월 13일~11월 5일(8주간)
2. 강의시간: 월·금 주5일수업
초급=A반 07시30분~08시30분
B반 08시40분~09시40분
C반 17시10분~18시10분
D반 18시20분~19시20분
중급=A반 07시30분~08시30분
B반 17시10분~18시10분
3. 모집인원: 각반15명(엄격한 정원제)
4. 강 사: STEVEN A. COLLYER, PATRICK D. KHAMIS
5. 수 강 료: 8주 13만원
6. 접수기간: 8월23일~9월10일까지 (선착순마감)

◆ A. F. K. N. 청취 특강
1. 기 간: 년중 계속 강의중(수시접수 수강가능)
2. 강의시간: 월·화·목·금 주4일 강의
낮 반=12:00~13:10
오후반=17:10~18:20
저녁반=18:30~19:40
3. 강 사: 강홍식 선생
4. 수강대상자: 최고급 수준의 청취, 회화, 어휘 득해력을 원하시는 분 Listening과 발음으로 고민하시는 분
5. 수 강 료: 1개월 단위 3만5천원

◆ 영어청취 특별강좌
1. 기 간: 9월11일~11월5일(8주간)
2. 강의시간: 월~금 주5일수업
A반=07시30분~08시40분
B반=08시50분~10시00분
C반=17시10분~18시20분
3. 모집인원: 각반40명(정원제)
4. 강 사: 박준호선생
5. 교 재: L/C practce soript(당일 배부), TOEFL·TOEIC L/C 기출문제, V. O. A. News TOEFL·TOEIC L/C고득점 전략 습득
6. 수 강 료: 8주 6만원
7. 접수기간: 8월23일~9월10일

◆ 중국어 특별강좌
1. 기 간: 9월 13일~11월 5일(8주간)
2. 강의시간: 초급=07시 30분~08시 30분 (월~금 주5일 수업)
중급=07시 30분~08시 30분 (월~금 주5일 수업)
3. 모집인원: 각반 40명씩
4. 강 사: 초급반=린녕애 선생 중급반=李 華 선생
5. 수 강 료: 8주 6만원
6. 접수기간: 8월 23일~9월 10일 (선착순 마감)

◆ 취업영어 특별강좌
1. 기 간: 9월13일~11월5일(8주간)
2. 강의시간: 16시00분~17시10분(월, 화, 목, 금 주4회 수업)
3. 모집인원: 30명(정원제)
4. 강 좌: 황정선생님
5. 교 재: PRINT매일 배부
6. 수 강 료: 8주 6만원
7. 접수기간: 8월23일~9월10일(선착순마감)

◆ 아카데미 TOEFL
1. 기 간: 9월13일~11월5일(8주간)
2. 강의시간: 월~목 주4일 강의 A반=07시 30분~08시 40분 B반=16시 20분~17시 30분
3. 모집인원: 각반 50명(정원제)
4. 강 사: 이삼홍 선생
5. 수 강 료: 8주 4만원
6. 접수기간: 8월 23일~9월 10일 (선착순 마감)

◆ 영작문 특별강좌
1. 기 간: 9월13일~11월5일(8주간)
2. 강의시간: 17시20분~18시40분 (월, 수, 금 주3일 하루 80분씩 수업)
3. 모집인원: 20명
4. 강 사: 이영옥 선생
5. 수 강 료: 8주 8만원
6. 접수기간: 8월 23일~9월 10일 (선착순 마감)

◆ 일본어 특별강좌
1. 기 간: 9월11일~11월5일(8주간)
2. 강의시간: 초급반=17시 20분~18시 20분(월~금 주5일 수업)
3. 모집인원: 40명(정원제)
4. 강 사: 김순희 선생
5. 수 강 료: 8주 6만원
6. 접수기간: 8월 23일~9월 10일 (선착순 마감)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복지·근로 장학생 모집

민족자주 정희 제25대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우들이 계속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복지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아 래 —

1. 선발인원: 복지30/근로33명
2. 신청장소: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학생회관3층)
3. 신청서 배부 및 접수: 1993. 9. 1~9. 10
4. 장학생 선발: 1993. 9. 15
5. 구비서류
가)복지장학생
· 복지 장학금 신청서 1부
· 생활보호대상증명서 1부
· 재해사실 증명서 1부
·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
· 성적증명서 1부
· 학부모 재산세 과세증명서 (92년 1,2기분)
* 생활보호대상자나 재해사실 증명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가 필요없습니다.
* 생활보호대상자나 재해사실증명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됩니다.
나)근로 장학생
· 장학금 신청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6. 유의사항: 93년도 2학기 교내의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수원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

추석 귀향 버스 이용안내

민족자주 정희 제25대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에서는 추석귀향 학우들의 편의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추석 귀향버스를 마련할 예정이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출발장소 및 날자: 경희대학교 수원 배유터, 28일 오전 11시
2. 귀향버스 예정노선
ㄱ. 영동선: 원주, 강릉
ㄴ. 중앙선: 충주(제천), 영주(안동)
ㄷ. 호남선: 대전, 전주(이리), 광주, 순천, 여수, 목포
ㄹ. 경부선: 대구, 경주(포항, 울산), 부산, 마산(진주)
3. 예매기간
단체: 9.13~17 (항우회, 동문회)
단체, 개인: 9.20~23
4. 예매장소: 학생회관3층 인권복지위원회(TEL 2804)
*예정노선은 35인 미만 접수시 변경(폐쇄, 경유)될 수 있으며 위노선외 폭적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접수하여 주십시요.

수원캠퍼스 사회진출 준비위원회

앨범촬영일정 졸업준비금 납부 안내

1. 촬영 일정
대상: 1학기 비촬영(복학생 포함)학우
기간: 9월 9일(2주간)
장소: 2호관 한누리 소극장
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복장: 사복정장
2. 졸업준비금 납부
납부처: 학생회관내 외환은행
영수증: 학생회관내 학생처 또는 사회진출준비위원회
기 간: 9월 6일~17일 (2주간)
3. 각과 사진 모집
졸업앨범의 편집은 학우들을 중심으로 편집하는 것입니다. 우리 배움터, 학우들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보관되어질 졸업앨범속에 기록할 우리 학우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모습들을 찾습니다.
신입생환영회, MT, 체육대회, 졸업·수학여행등과 토론회, 실험연구, 학술 세미나등 학회의 모습이나 학우의 모습들이 담겨있는 소중한 사진이면 환영합니다. (꼭 필름을 꼭 준비하여 주십시요)

수원캠퍼스 사회진출 준비위원회